

# 김종광 한국BASF 회장 “산업훈장”

## 제31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 LG정유 명예식 사장도 철탑산업훈장

제3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대통령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4단체 임직원, 기업인 등 모두 1200여명이 참석한 개최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3월17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정인 현대모비스 회장이 기업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스키장갑 전문 중소기업 시즈의 김주인 회장과 한국BASF 김종광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치과용 의료장비기업 신희의 이영규 회장과 현대자동차 서병기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명예식 LG-Caltex정유 사장과 문구 생산기업 리멤버의 우동석 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은 최진석 호성케멕스 대표이사과 김판길 삼성P&C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박삼구 회장은 1991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적극적인 노사확충에 힘쓴 결과 금호아시아나를 2003년 말 기준 국내선 18개 노선, 국제선 51개 노선을 운항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시켰으며, 윤리경영을 최우선 실천가치로 천명하고 적극 실천해 산업계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BASF 김종광 회장은 국내외 전례가 없는 여러 건의 기업조직 인수·합병으로 통합기업의 장점과 강점을 살려 우량기업을 탄생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BASF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고 국내기업들과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에 한국투자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등 한국-독일 협력관계를 비롯한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LG-Caltex정유의 명예식 사장은 32년 동안 정유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제2차 오일쇼크 극복을 위한 원유선 다변화와 경영혁신, 공정거래 확립, 노사관계 안정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평화산업의 김종석 부회장을 비롯해 6명이 산업포장을, 한화중합화학 진해공장 신천식 상무이사와 효성 김천식 모스크바지사장 등 9명이 대통령 표창을, 남선석유 김홍균 대표이사와 서흥갑셀 양주환 대표이사, 쌍용양회 차춘수 이사 등 10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SKC 김효섭 상무이사와 LG화학 울산공장 천정기 차장, KP케미칼 류근우 차장 등 130명이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그리고 경제4단체장 표창에 70명 등 총 225명이 수상자에 올랐다.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급상승하고 국내적으로는 투자와 소비위축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마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서로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상호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밝혔다.

상공의 날은 1973년 상공인의 날, 중소기업의 날,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 등 5개 기념행사를 통합해 경제4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해 오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18>